

베이비부머의 성격특성이 노후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천안지역 공단 근로자를 중심으로-

Effects of the Personality Traits of Baby Boomers on the Preparation Behaviors for the Old Age

-Focused on the Cheon-An Industrial Complex's Workers-

유인순, 최수일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노인복지학과

In-Soon You(ho9045@yahoo.co.kr), Soo-Il Choi(sichoi47@hoseo.edu)

요약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성격특성 및 노후준비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성격5요인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로 천안시 공단지역 근로자 33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성분석 및 t-test, ANOVA,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부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성격특성과 노후준비행동에서 부분적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베이비부머의 성격특성 중 외향성과 개방성, 그리고 성실성은 신체적 노후준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정서적 불안정성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호감성은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베이비부머의 성격특성이 사회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성실성과 개방성, 외향성이 정(+)의 영향을 미쳤고, 정서적 불안정성과 호감성은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베이비부머의 성격특성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서적 불안정성,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이 영향을 미치고 호감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베이비부머 | 성격특성 | 노후준비행동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differences in personality traits and preparation level of the baby boomers for the old age by the demographic factors and to analyze the effect of Big 5 on preparation for the old age. The 331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mong workers born in 1955 to 1963 in the Chunan industrial complex. And the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t-test, ANOV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for the collected data were conducted with program SPSS 18.0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partial difference in personality and preparation for the old age by the demographic factors. Second, extraversion ,openness to experience and conscientiousness from personality have a positive effect on physical preparation for the old age while neuroticism has a negative effect on it. And there is no relationship between agreeableness and personality.

Third, conscientiousness, openness to experience and extraversion have a positive effect on social preparation for the old age, but neuroticism and agreeableness do no affect it. Fourth, neuroticism,extraversion,openness to experience and conscientiousness have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preparation for the old age, but agreeableness does not have any relationship with economic preparation.

■ keyword : | Baby Boomer | Personality Trait | Preparation Behaviors for the Old Age |

I. 서론

베이비부머는 한국 전쟁 이후 출산율이 급등한 1955년부터 산아제한 정책으로 출산율이 둔화되는 시기인 1963년까지 출생한 세대를 말한다. 이들은 2010년 현재 712.5만 명으로 전체인구(4,887만 명)의 14.6%를 차지하며[1] 가구주 연령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21.8%에 속하는 거대 집단이다[2].

이들의 대부분은 한국 전쟁 후 어린 시절에 생리적 욕구조차 해결되지 않았던 절대 가난을 경험했으며, 1955년에 66달러이던 국민소득을 2007년에 2만 달러로 상승시켰고[3], 빈곤한 농업기반 국가를 지식정보화 사회로 발전시킨 산업 역군들이다. 근로생애동안 초과 근무도 당연시 여길 만큼 일을 우선으로 생각했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절약하여 대한민국의 고도성장을 이끌어 온 주역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강제 퇴출의 위험에 내몰리기도 했다. 이렇듯 독특한 역사적 경험과 환경적 특성을 갖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별다른 준비 없이 썰물은퇴를 시작하여 노인인구로 진입하고 있다[4]. 더구나 베이비부머의 막내인 1963년생이 65세가 되는 2028년에는 노인인구가 '천만 명'으로 증가 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들이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69.8%만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5], 베이비부머의 노후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 된다. 이 시점에 이들의 노후준비에 대한 의식과, 준비상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노후준비관련 선행 연구들의 대부분은 인구사회학적 특성[6-26]과 라이프스타일 변인[15]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 성격특성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나 그 숫자가 극히 소수이면서 주로 경제적 준비에 관한 것만 찾을 수 있었다[27].

성격특성이 결혼의 질[28], 삶의 만족과 자아 존중감[29], 조직몰입과 조직 시민행동[30], 고객 충성도[31], 직무몰입 및 고객지향성[32] 등의 다양한 변수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노후준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의 성격특성(Big 5)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여 이들에게 적절한 노후준비방안을 제공하는데 이용하고자 한다. 예컨대, 사전 성격검사는 노후준비에 관한 조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노후준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성격특성은 노후준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성격특성과 노후준비에는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

베이비부머들은 생애를 통해 노화에 대한 극적인 변화를 체험한 세대이다. 1960년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52.4세에서 2010년 79.6세가 되었고, 이제는 초장수인이 급증하고 있어서 사람의 생애 중 최고 수명이라는 '상수(上壽)를 일컫는 100세 이상의 노인이 늘고 있다.

과거 인류 역사에서 현재와 같이 초 고령자가 급속도로 증가한 세대가 없었기 때문에 노후생활에 대한 경험적 학습이 부족하여 준비되지 않은 노후로 고통 받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어, 노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고독(孤獨), 유병(有病), 무업(無業), 그리고 무전(無錢)을 4가지 노후문제로 들고 있다[33]. 첫 번째, 고독은 노후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약화되면서 외로움에 빠질 수 있는 사회적 노후준비의 부족을 말한다.

두 번째는 신체적 노후준비에 대한 유병문제이다. 나이가 들면 신체적인 노화로 인한 건강의 악화를 피할 수 없다. 2008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60세 이상 노인 중 82.2%가 한 개 이상의 질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이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34].

마지막으로 노후에 아무 할 일이 없는 무업과, 돈이

없는 경제적 노후준비의 부족이다. 은퇴 이후 30~4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노년의 삶을 좌우하는데, 직업은 질서 있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양하게 교류할 기회를 주어 사회적 관계의 기반이 된다. 베이비부머들은 노후에 필요한 수입을 월평균 200만원 내외로 예상하지만 이들의 26.1%는 노후에 100만원 미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35].

초 고령화 사회에 4가지 노후문제를 최소화하고 삶의 질이 향상된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노후준비가 필요하다.

1.1 경제적 노후준비

노후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예측하고 활용 가능한 자원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판단하여 그 차이를 메우려는 노력이 경제적 노후준비이다.

노후 생활에 있어서 경제력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이며,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자아실현과 관계된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다른 영역보다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가 많다[36-40]. 특히 경제적인 노후준비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므로 은퇴 후의 소득 예측을 통해 지출부문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준비해야한다[41].

2010 통계청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베이비부머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으로 최소 3.6억 원이 필요하나, 이 정도를 보유한 가구는 24.3%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부동산이 74.8%, 금융자산 21.1%로 지나치게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으며, 가구의 70%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2].

이처럼 노후생활에 대한 필요자금의 부족, 높은 부채 보유율, 자산 포트폴리오의 부적정성 등 은퇴 후 노후생활 안정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노후설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베이비부머 세대 중 69.8%만이 은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5], 이에 대한 적절

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1.2 신체적 노후준비

신체적 노후준비는 평소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노년기의 생활을 예측함에 있어서 신체적 건강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신체적 노화를 감지 할 수 있는 중년기부터 노인 전반기까지 누적된 경험으로 인해 노년기의 개인 건강에 차이가 나므로[43], 중년기부터 건강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질병과 장애가 없으면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기가 더 쉽고 이를 유지함으로써 적극적인 인생 참여가 가능해진다[44].

Rowe와 Khan[45]은 성공적 노화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질병을 피해가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라고 하였고, Ladika[46]에 의하면 바람직한 노화에 대한 특성으로 긍정적인 정신자세와 좋은 육체적 건강을 가지고 사회적인 참여를 하며 오래 사는 것이라고 했다. ‘활동적 또는 바쁨을 유지’, ‘움직임’, ‘계속일하기’, ‘독립해서 살고 운전하기’, ‘건강에 문제가 없음’, ‘건강증진 습관 가지기’, ‘좋은 육체적 외모 가지기’, 또는 ‘나이만큼 안보기’, ‘좋은 유전자를 갖는 것’이 신체적 노후준비에 필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한 연구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령자가 생각하는 장수비결이 절제된 식습관(54.4%), 낙천적인 성격(31.0%), 규칙적인 생활(30.9%)로 나타났다[13]. 일반적으로 신체적 노후준비에 관한 행동으로 금주나 금연, 식습관 등을 들고 있는데[43], 베이비부머는 흡연율이 23.8%, 음주율이 62.8%이며 고학력 및 취업중인 베이비부머에게서 흡연율이나 음주율이 높게 나타났다[4].

루이스터먼 박사가 1500명을 대상으로 80년간을 중단 연구한 프로젝트에 의하면 성실한 성격의 소유자가 더 오래 살았다는 결과가 나타났는데[47] 이는 성실한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술과 담배 약물 같은 것을 멀리하고, 식습관 등에 관한 규칙을 기꺼이 잘 지킨 결과인 것으로 밝혀졌다.

1.3 사회적 노후준비

개인이 갖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범위는 삶의 질을

결정 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한 개인이 결속력 높은 폭넓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그로부터 다양한 지지를 받을수록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과 배우자나 지인의 상실로 인한 고독감, 기능과 적응력 저하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노년기의 사회적 지지는 매우 중요하다[6].

Antonuchi는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줄만한 사회적 지지층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했느냐에 의해 개인의 성공적인 노화가 결정된다고 하였다. 밀접도의 수준에 따라 가장 가까운 방어막은 부모, 배우자, 자식들이고, 두 번째 방어막은 가까운 친구들이며, 세 번째 방어막은 업무상 동료나 다른 친구나 친척의 연계 고리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48]. 따라서 노년기 이전 시기부터 정서적으로 친밀하고 의지 할 수 있는 가족과 친지, 친구와의 관계를 굳건하게 하고,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후의 축적된 지식과 기술의 경험을 최대한도로 활용하여 능동적인 주체자로 사회참여를 하여 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7].

베이비부머가 친밀감을 느껴 자주 접촉하는 사람으로는, 31.5%가 지역주민, 28.1%가 직장동료, 25.9%가 동창이라고 응답했다[4].

2.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선행연구에 의하면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로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6-26]이 대부분이며 라이프 스타일[15]등이 일부 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다. 성격 특성(Big 5)을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용한 국내 논문은 찾기 어려웠고, 해외연구에서도 경제적 노후준비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유일한 실정이었다[2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성격특성(Big 5)을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채택하고자 한다.

2.1 인구 사회학적 변인

1) 성별

노후준비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건강관리에 보다

적극적이며 신체적 노후 준비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6][8-10], 황승일[11]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정서적 노후 준비에 더 적극적 이라고 했다.

2) 연령

연령이 높을수록 생애주기가 진전되어 노년기에 가까워지므로 연령에 따라 노후준비에 차이가 나는데, 경제적 노후준비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이 한다는 연구[6][12][13]와, 젊은 층에서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한다는 연구[11][36]도 있어, 연구결과들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신체적 노후준비는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이 한다는 결과이다. 따라서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건강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12][14][15].

3) 학력

학력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김남순[6], 지민선[16]은 모든 유형의 노후준비에, 배계희[17], 김기태[18]는 경제적 노후준비에서, 강유진[12], 손덕순[19]은 사회적 노후준비를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성·최수일[15]은 학력이 낮을수록 신체적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하고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노후준비를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유무에 따른 노후준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강영숙[20]은 미혼자가 더 준비를 하고, 김남순[6], 황승일[11]은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경제적, 신체적 노후준비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김주성·최수일[15]은 배우자가 있는 집단에서 사회적 노후준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자녀수

최정숙[9]과 성말순[21]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신체적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순[6]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노후 준비도가 높았다.

6) 부모부양여부

신승희[22]와 김성희[24]의 연구에서는 노부모를 부

양하지 않거나 동거하지 않을 경우 노후준비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전·박혜인[23]은 노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집단이 노후준비를 더 잘한다고 나타났다. 한편 이미선[25]의 연구에서는 노부모 부양은 노후준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주택소유여부

김남순[6]의 연구에서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 경제적 노후준비도가 높았으며, 김주성·최수일[15]의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집단은 사회적 노후준비도가 높았고 소유하지 않은 집단은 신체적 노후준비도가 높았다.

8) 월평균 수입

김남순[6]의 경우 월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도가 높았고, 김주성·최수일[15]은 월 소득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노후준비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최정숙[9], 배문조 전귀연[14], 손덕순[19], 성말순[21], 김양이·이채우[26]는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적 측면의 노후준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성격특성

2.2.1 성격특성의 개념 및 유형

성격은 인간의 발달, 정서, 인지, 학습 및 사회적 관계 등의 인접분야와 중첩되어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으며 [49], 특성이란 개인을 다른 사람과 구별 할 수 있는 특징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차이 나는 것으로, ‘특정 상황에서 개인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며, 인간의 모든 행동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50].

본 연구에서 채택한 성격 특성은 Costa와 McCrae[51]에 의해 개발된 Big 5 요인으로 외향성, 정서적 불안정성, 호감성, 개방성, 성실성이 있으며 이들 요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요인은 외향성(extraversion)으로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원하고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외향성에 관련한 하위요인은 온정성, 사교성, 리더십, 적극성, 긍정성 등이 있다. 두 번째 요인은 호감성(agreeableness)으로서, 타인과 평안하고 조화

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호감성에 관련된 하위 요인은 타인에 대한 믿음, 도덕성, 타인에 대한 배려, 수용성, 겸손, 휴머니즘 등이 있다. 세 번째 요인은 성실성(conscientiousness)으로서, 사회적 규범, 규칙, 원칙들을 기꺼이 지키려는 정도를 나타낸다. 성실성에는 유능성, 조직화 능력, 책임감, 목표지향, 자기통제력, 완벽성 등의 하위 요인이 있다. 네 번째 요인은 신경증(neuroticism)으로서, 심리적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비현실적으로 사고하고, 지나치게 갈망하거나 요구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에겐 불안, 분노, 우울, 자의식, 충동성, 스트레스 취약성 등이 있다. 이 요인을 정서적 불안정성이라고도 한다[52]. 다섯 번째 요인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으로 자기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관심, 호기심, 다양한 경험에 대한 추구 및 포용력 정도를 나타내며 개방성과 관련된 특성은 상상력, 문화, 정서, 경험추구, 지적 호기심 등이 있다.

2.3 성격특성과 노후준비에 관한 선행연구

백경숙[53]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0세 미만의 공무원, 공기업, 사립학교 교직원,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적 성향에 따른 노후생활 대책에 관한 연구에서 보수주의 유형의 사람들과 개방적인 유형의 사람들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후생활 대책 시기’에서는 개방적일수록 젊었을 때부터 노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노후준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개방적 유형의 사람들은 ‘취미생활 등 노후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위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수주의 유형에서는 ‘노후를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Julia Korhonen[54]은 핀란드에서 경제학 또는 공학 계열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636명(20~60대)을 대상으로 성격특성이 은퇴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성격 5요인 중 외향성(extraversion)이 은퇴 저축을 할 가능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고, 개방성(openness)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개방성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는 개방성이 강

한 사람들이 투자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그들의 가치분 소득을 소비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연구자는 주장했다.

Cliff Mayfield[55]는 성격특성과 장·단기 투자 의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성격 5요인 중 외향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단기적인 투자에 개입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신경증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단기투자를 회피하는 성향이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개방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장기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riedman[56]의 연구에 의하면 성실한 성격의 소유자가 신체적 노후준비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이론적 배경과 연구문제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3-1. 연구 모형

2. 자료 수집 및 분석

연구 대상은 충남 천안시 공단지역 근로자중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1년 9월10일부터 10월20까지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총 350부였으나 결측값이 있는 19부를 제외하고 331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성분석 및 t-test, ANOVA,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방법으로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3. 측정도구

노후준비의 하위 변수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로 구성 되었으며 이들 변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중년층 노동자의 노후설계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 김남순[27]이 사용한 설문 문항을 12문항으로 재구성 하였다.

성격특성은 외향성, 개방성, 호감성, 정서적 불안정성, 성실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변수들의 측정은 조직구성원의 성격유형과 조직효과성을 연구한 김재경[49]이 사용한 성격 질문지를 17개 문항으로 재구성 하였다.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않다(1점)부터 매우그렇다(5점)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변수로는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유무, 주택소유 유무, 부모부양여부, 자녀수, 월평균수입을 측정 하였고, 추가적으로 직장의 규모와 직무에 대해서 측정 하였다.

4. 연구대상의 특성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과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 자녀 수, 부모 부양 여부, 주택 소유 유무, 월 평균 수입 등을 알아보았고, 추가적으로 직장의 규모와 직무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3-1]에서와 같이 남성이 199명(60.1%)으로 여성 132명(39.9%)보다 많았고, 연령은 1961~1963년생(49~51세) 128명(38.7%), 1958~1960년생(52~54세) 120명(36.3%), 1955~1957년생(55~57세) 83명(25.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하가 223명(67.4%)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학교 졸업이 71명(21.4%), 대학교 졸업이상이 37명(11.2%)이었으며, 배우자 유무에서는 없다가 31명(9.47%), 있다는 300명(90.6%)이 응답하였다. 그리고 자녀가 없는 경우가 21명(6.3%), 1명은 41명(12.4%), 2명은 214명(64.7%), 3명 이상은 55명(16.6%)이었다.

표 3-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199	60.1
	여성	132	39.9
연령	1961-1963 (49-51세)	128	38.7
	1958-1960 (52-54세)	120	36.3
	1955-1957 (55-57세)	83	25.0
학력	고등학교 졸업이하	223	67.4
	전문대학교 졸업	71	21.4
	대학교 졸업이상	37	11.2
배우자 유무	없다	31	9.4
	있다	300	90.6
자녀 수	없다	21	6.3
	1명	41	12.4
	2명	214	64.7
	3명 이상	55	16.6
주택 소유 유무	없다	36	10.9
	있다	295	89.1
부모 부양 여부	부양하지 않는다	234	70.7
	부양한다	97	29.3
월평균 수입	200만원 미만	99	29.9
	200-300만원 미만	92	27.8
	300-400만원 미만	68	20.5
	400만원 이상	72	21.8
직장 규모	50인 미만	103	31.1
	50-100인 미만	34	10.3
	100-300인 미만	72	21.8
	300인 이상	122	36.8
직무	생산직	141	42.6
	기술직	64	19.3
	사무직	54	16.3
	관리직	72	21.8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295명(89.1%)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36명(10.9%)보다 많았고, 부모 부양 여부에서는 부양하지 않는다가 234명(70.7%), 부양한다는 97명(29.3%)이었으며, 월 평균 수입의 경우 200만원 미만이 99명(29.9%), 200~300만원 미만이 92명(27.8%), 300~400만원 미만이 68명(20.5%), 400만원 이상이 72명(21.8%)이었다. 이들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규모는 50인 미만이 103명(31.1%), 50~100인 미만이 34명(10.3%), 100~300인 미만이 72명(21.8%), 300인 이상이 122명(36.8%), 생산직이 141명(42.63%), 기술직이 64명

(19.3%), 사무직이 54명(16.3%), 관리직이 72명(21.8%)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VI. 연구 결과

1. 성격특성과 노후준비

1.1 성격특성

성격특성의 하위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총 20개 항목을 요인 분석한 결과 [표 4-1]과 같이 고유치 1.0이상인 5개 요인으로 분류 되었다.

표 4-1. 성격특성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분석

요인	문항	요인 부하	고유치	누적 분산	신뢰 계수
외향성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733	2.42	14.23	.766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한다.	.701			
	매사에 좋은 생각만 하려고 노력한다.	.640			
정서적 불안정성	사람을 늘 따뜻하게 대한다.	.604	2.39	28.27	.815
	열등감, 강박감이 심하다.	.898			
	늘 슬프고 무력감에 빠져 있다.	.834			
호감성	조그마한 일에도 매우 민감하다.	.790	2.29	41.73	.734
	사람을 잘 믿는 편이다.	.809			
	남을 먼저 생각한다.	.761			
개방성	모든 일에 정직하다.	.725	2.12	54.23	.704
	감수성이 예민한 편이다.	.725			
	새로운 체험을 좋아한다.	.685			
성실성	문화생활 및 여가를 즐긴다.	.653	1.96	65.75	.753
	늘 새로운 것을 생각한다.	.644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808			
성실성	사람을 잘 조직, 관리한다고 생각한다.	.808	1.96	65.75	.753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532			

요인 1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며, 매사에 좋은 생각만 하려고 노력한다는 등 활동적인 성격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외

향성'이라고 명하였다. 요인 2는 열등감과 강박감이 심하고 슬프거나 무력감에 빠져 있으며, 조그마한 일에도 민감하다는 등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성격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정서적 불안정성'이라 하였다. 요인 3은 사람을 잘 믿을 뿐 아니라 자신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모든 일에 정직하다는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호감성'이라 하였으며, 요인 4는 감수성이 예민하거나 새로운 체험을 좋아하고, 문화생활 및 여가를 즐김과 동시에 늘 새로운 것을 생각한다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개방성'이라 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 5는 자신을 유능하다고 생각하거나 사람을 잘 조직한다고 여기며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등의 문항으로 구성 되어 '성실성'이라 명하였다. 이들 요인 중 외향성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고, 요인의 총 변량은 65.75%였으며, 요인분석 과정에서 요인 값 0.5 이하를 나타낸 3문항(나는 늘 무엇인가에 쫓기는 것 같다, 나는 모든 현상을 받아들여야 노력한다, 나는 내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고자 노력한다)이 제거되었다. 또한 신뢰성분석 결과 Cronbach's α 계수가 0.704~0.815의 수준으로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다.

1.2 노후준비

노후 준비에 관한 총 15문항을 요인 분석한 결과, [표 4-2]에서처럼 고유치 1.0이상인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요인 1은 체력단련을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하거나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잘 지키고 있으며, 스트레스를 적절한 방법으로 해소하거나 건강한 성생활을 하고 있다는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신체적 노후준비'라 명하였다. 요인 2는 노후에 종교를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계획하고 있으며, 노후의 여가를 위해 준비하고 있음은 물론 현재보다 미래가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적 노후준비'라 하였다. 요인 3은 노후를 위해 현재 직업 외에 다른 일을 하고, 정년 이후에도 일 하기를 원하며,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있다는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경제적 노후준비'라 명명하였다.

표 4-2. 노후준비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분석 결과

요인	문항	요인 부하	고유치	누적분산	신뢰 계수
신체적 노후준비	체력단련을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다	.812	2.23	21.61	.694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잘 지키고 있다	.767			
	건강을 위해 스트레스를 적절한 방법을 통해 잘 해소하고 있다	.619			
	건강한 성생활을 잘하고 있다	.609			
사회적 노후준비	노후에 종교를 가지는 것이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된다	.753	2.07	39.84	.660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678			
	노후에 여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배우거나 준비하고 있다	.640			
	현재보다 미래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570			
경제적 노후준비	노후를 위해 현재 직업 외에 다른 일도 하고 있다	.724	1.97	58.23	.637
	정년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기를 원한다	.705			
	정년을 대비한 노후의 직업을 구상하고 있다	.688			
	노후를 위해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	.5816			

이들 요인 중에서 신체적 노후준비에 관한 설명력이 가장 높았고, 요인의 총 변량은 58.23%였으며, 요인분석 과정에서 요인 값 0.5 이하를 보인 3항목(건강보조식품섭취, 동창회, 친목회 등의 적절한 유대관계, 국민연금 외에 노후를 위해 개인연금 상품에 별도로 저축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다)이 제거되었다. 또한 신뢰성 분석에 의한 Cronbach's α 계수가 0.694, 0.660, 0.637로서 0.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격특성 및 노후준비의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 자녀수, 주택 소유 유무, 부모 부양 여부, 월 평균 수입)에 따른 성격특성 및 노후준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측정변수의 하위요인별로 평균점수를 산출한 후 t-test 와 ANOVA를 실시하였다. 성별과 배우자 유무, 주택

소유 유무, 부모 부양 여부는 t-test를 실시하였는데, t-test의 경우 T검증에 의한 유의도 값이 0.05보다 작으면 모집단의 평균이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연령과 학력, 자녀 수 및 월 평균 수입은 ANOVA를 실시하였고, 각 집단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사후다중비교를 위한 방법으로 Scheffé법을 사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3]과 같다.

2.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격특성의 차이

[표 4-3]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격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로서 성별에 따라서는 성실성(t=3.91,

표 4-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격특성 차이 분석 결과

구분		외향성		정서적불안정성			호감성			개방성			성실성			
		M	SD	t/F	M	SD	t/F	M	SD	t/F	M	SD	t/F	M	SD	t/F
성별	남성(n=199)	3.60	.48	1.25	2.33	.98	0.44	3.54	.54	0.03	3.09	.65	0.74	3.34	.59	3.91***
	여성(n=132)	3.52	.67		2.29	.86		3.54	.70		3.04	.65		3.04	.79	
연령	49-51세 (n=128)	3.57	.58	0.11	2.18	.77	5.70**	3.57	.64	0.15	3.12	.68	2.59	3.15	.73	2.02
	52-54세 (n=120)	3.59	.51		2.51	.83		3.53	.61		3.11	.66		3.32	.69	
	55-57세 (n=83)	3.57	.57		2.22	.86		3.54	.61		2.93	.58		3.19	.64	
학력	고졸이하 (n=223)	3.54	.59	1.12	2.27	.78	0.98	3.48	.60	4.07*	3.03	.64	1.63	3.13	.69	6.79**
	전문대 졸업 (n=71)	3.61	.46		2.36	.89		3.71	.52		3.15	.64		3.39	.63	
	대졸 이상 (n=37)	3.67	.59		2.46	.98		3.58	.74		3.18	.71		3.48	.74	
배우자 유무	없다(n=31)	3.73	.64	1.63	1.73	.63	-4.22**	3.46	.69	-0.76	3.27	.62	1.77	3.37	.68	1.22
	있다(n=300)	3.55	.56		2.37	.82		3.55	.65		3.05	.65		3.21	.70	
자녀수	없다 (n=21)	3.55	.71	0.01	1.90	.69	3.88**	3.65	.62	0.47	3.07	.88	1.92	3.06	.99	1.32
	1명 (n=41)	3.57	.44		2.63	.72		3.58	.69		3.29	.68		3.37	.70	
	2명 (n=214)	3.57	.56		2.29	.83		3.54	.58		3.04	.63		3.19	.65	
	3명이상 (n=55)	3.57	.63		2.34	.87		3.48	.65		3.00	.60		3.28	.74	
주택소유유무	없다(n=36)	3.36	.69	-2.35*	2.50	.81	1.45	3.44	.57	-1.12	2.80	.69	-2.61*	2.91	.89	-2.89*
	있다(n=295)	3.59	.59		2.29	.83		3.55	.61		3.10	.64		3.26	.66	
부모부양여부	부양 안한다 (n=234)	3.55	.57	-0.87	2.30	.82	-0.35	3.49	.62	-2.63*	3.06	.64	-0.41	3.20	.70	-0.91
	부양한다 (n=97)	3.61	.55		2.34	.83		3.68	.55		3.09	.67		3.27	.69	
월평균수입	200만원미만 (n=99)	3.49	.67	3.45*	2.29	.84	1.28	3.49	.66	3.19*	2.96	.70	3.85*	2.98	.77	7.43***
	200-300만원미만 (n=92)	3.49	.56		2.42	.93		3.45	.62		3.02	.59		3.21	.66	
	300-400만원미만 (n=68)	3.60	.47		2.34	.74		3.54	.60		3.08	.64		3.34	.62	
	400만원이상 (n=72)	3.74	.46		2.17	.72		3.73	.49		3.28	.63		3.44	.62	

*p<.05, **p<.01, ***p<.001

$p<.001$)에서 차이를 보였고, 남성($M=3.34$)이 여성($M=3.04$)보다 평균값이 더 높았다. 다시 말해, 여성들에 비해 남성들이 자신을 더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뿐 아니라 사람을 잘 조직, 관리하며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노력한다고 여기고 있었다. 연령에서는 정서적 불안정성($F=5.70$, $p<.01$)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49~51세($M=2.18$)와 55~57세($M=2.22$)보다 52~54세($M=2.51$)에서 더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이는 52~54세의 연령대가 49~51세, 55~57세에 비해서 열등감과 강박감이 심하고 조그마한 일에도 민감하여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성격을 더 많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력에 따라서는 호감성($F=4.07$, $p<.05$)과 성실성($F=6.79$,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호감성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하($M=3.48$)와 대학교 졸업이상($M=3.58$)에 비해 전문대학교 졸업($M=3.71$)의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나 전문대학교 졸업자들이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모든 일에 정직한 성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니고 있었다. 성실성은 고등학교 졸업이하($M=3.13$)에 비해 대학교 졸업이상($M=3.48$)에서 더 높은 평균값을 보임으로써 대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지닌 사람들이 고등학교 졸업이하보다 자신을 더 유능하다고 생각하거나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의 성실성을 보다 많이 지니고 있었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정서적 불안정성($t=-4.22$, $p<.001$)에서 차이를 보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M=2.37$)들이 없는 경우($M=1.73$)보다 정서적으로 더 불안정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밝혀졌다. 자녀수에서도 정서적 불안정성($F=3.88$,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자녀수가 1명인 집단($M=2.63$)이 없는 집단($M=1.90$)보다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나 자녀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1명인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더 불안정하였다. 또한 주택 소유 유무에 따라서는 외향성($t=-2.35$, $p<.05$), 개방성($t=-2.61$, $p<.01$), 성실성($t=-2.89$, $p<.01$)에서 차이가 있었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더 외향적이고 개방적이며 성실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2.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의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4-4]에서처럼 성과 연령, 학력, 주택 소유 유무, 월 평균 수입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노후준비의 하부요인인 신체적 노후준비($t=4.09$, $p<.001$), 사회적 노후준비($t=-3.53$, $p<.001$), 경제적 노후준비($t=2.53$, $p<.05$) 모두에서 차이를 보였다. 신체적 노후준비의 경우 남성($M=3.20$)이 여성($M=2.89$)보다 더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 여성에 비해 남성이 체력단련을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하거나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잘 지키고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는 등 신체적으로 노후를 더 많이 준비하고 있었다. 사회적 노후준비에서는 여성($M=3.26$)이 남성($M=2.95$)보다 더 높은 평균값을 보임으로써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종교를 가지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노후의 여가를 위해 준비하는 등 사회적으로 노후를 더 많이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경제적 노후준비에서는 남성($M=2.91$)이 여성($M=2.68$)보다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나 남에 따라 여성에 비하여 남성들이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기를 원하거나 노후를 위해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노후를 더 많이 준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신체적 혹은 경제적으로 노후를 더 많이 준비하는 반면,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사회적으로 노후를 더 많이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경제적 노후준비($F=7.56$, $p<.01$)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49~51세($M=2.62$)보다 52~54세($M=3.00$)에서 더 높은 평균값을 보임으로써 52~54세가 49~51세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더 많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력에 따라서는 사회적 노후준비($F=2.75$, $p<.05$)와 경제적 노후준비($F=6.66$,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적 노후준비의 경우 전문대학교 졸업($M=2.99$)에 비해 대학교 졸업이상($M=3.35$)의 평균값이 더 높았고, 경제적 노후준비는 고등학교 졸업이하($M=2.73$)와 전문대학교 졸업($M=2.86$)에 비해 대학교 졸업이상($M=3.24$)의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대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지닌 사람들이 전문대학교 졸업자들보다 사회

적 혹은 경제적으로 노후를 더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택 소유 유무에 따라서는 신체적 노후준비($t=-5.09, p<.001$)에서 차이를 보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집단 ($M=2.54$)에 비해 소유하고 있는 집단($M=3.15$)이 신체적으로 노후를 더 많이 준비하고 있었으며, 월 평균 수입에서는 신체적 노후준비($F=12.25, p<.001$), 사회적 노후준비($F=3.23, p<.05$), 경제적 노후준비($F=5.41, p<.01$)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0만원 미만 ($M=2.79$)과 200~300만원 미만($M=3.04$)에 비해 400만

원 이상($M=3.36$)에서 신체적으로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었고, 400만원 이상($M=2.91$)보다는 300~400만원 미만($M=3.31$)이 사회적으로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하였으며, 200만원 미만($M=2.57$)에 비해 200~300만원 미만($M=2.93$)과 300~400만원 미만($M=3.01$)이 경제적으로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성과 연령, 학력, 주택 소유 유무, 월 평균 수입에 따라 노후준비에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4-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 차이분석 결과

구분		신체적 노후준비			사회적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		
		M	SD	t/F	M	SD	t/F	M	SD	t/F
성별	남성(n=199)	3.20	.65	4.09***	2.95	.72	-3.53***	2.91	.72	2.53*
	여성(n=132)	2.89	.72		3.26	.85		2.68	.91	
연령	49-51세 (n=128)	3.05	.74	0.22	3.05	.73	0.76	2.62 b	.78	7.56** a)b
	52-54세 (n=120)	3.09	.69		3.14	.84		3.00 a	.75	
	55-57세 (n=83)	3.11	.63		3.02	.81		2.86 ab	.87	
학력	고졸이하 (n=223)	3.05	.70	1.20	3.05 ab	.79	2.75* a)b	2.73 b	.83	6.6 6** a)b
	전문대 졸업 (n=71)	3.19	.68		2.99 b	.76		2.86 b	.62	
	대졸 이상 (n=37)	3.05	.68		3.35 a	.79		3.24 a	.85	
배우자 유무	없다(n=31)	2.94	.62	-1.21	3.12	.74	0.34	2.76	.82	-0.44
	있다(n=300)	3.10	.70		3.07	.80		2.83	.81	
자녀수	없다 (n=21)	2.81	.72	1.66	2.90	.67	0.44	2.96	.63	1.76
	1명 (n=41)	3.21	.64		3.15	.77		2.82	.94	
	2명 (n=214)	3.09	.70		3.08	.81		2.75	.74	
	3명 이상 (n=55)	3.04	.70		3.07	.77		3.01	.97	
주택소유유무	없다(n=36)	2.54	.53	-5.09***	3.03	.87	-0.32	2.66	.70	-1.25
	있다(n=295)	3.15	.69		3.08	.78		2.84	.82	
부모부양여부	부양안한다 (n=234)	3.07	.69	-0.56	3.12	.77	1.50	2.82	.76	-0.05
	부양한다 (n=97)	3.11	.71		2.97	.82		2.82	.91	
월평균수입	200만원미만 (n=99)	2.79 c	.68	12.25***	3.01 ab	.96	3.23* a)b	2.57 b	.90	5.41** a)b
	200-300만원미만 (n=92)	3.04 bc	.65		3.10 ab	.65		2.93 a	.78	
	300-400만원미만 (n=68)	3.26 ab	.62		3.31 a	.63		3.01 a	.71	
	400만원이상 (n=72)	3.36 a	.70		2.91 b	.79		2.83 ab	.72	

*p<.05, **p<.01, ***p<.001
a,b,c는 Scheff test 결과 .05수준에서 유의함

3. 성격특성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성격특성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고, 성격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인 노후준비는 신체적 노후준비, 사회적 노후준비 및 경제적 노후준비의 3개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므로 이들 각각을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성격특성이 신체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성격특성이 신체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성격특성의 요인인 외향성, 정서적 불안정성, 호감성, 개방성, 성실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신체적 노후준비를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5]와 같다.

1단계에서 투입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포함한 회귀 모형의 F 통계값은 9.504로서 $p < .001$ 에서 유의하였고, 변수들 간의 투입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VIF값이 1.065~1.659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주택 소유 유무($t=4.342, p < .001$)와 월 평균 수입($t=3.788, p < .001$)이 신체적 노후준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고, 이중에서도 월 평균 수입($\beta=.205$)에 비해 주택 소유 유무($\beta=.236$)의 상대적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월 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체력단련을 위해 꾸준하게 운동을 하거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등 신체적인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19.1%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김남순[27], 김주성·최수일[3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2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성격특성의 요인을 투입한 결과 회귀모형의 F 통계값은 10.819로서 $p < .001$ 에서 유의하였고, VIF값은 1.027~1.722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는 성별($t=-2.311, p < .05$)과 주택 소유 유무($t=3.298, p < .01$), 월 평균 수입($t=2.842, p < .01$)이 신체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중에서도 주택 소유 유무($\beta=.170$)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그다음으로 월 평균 수입($\beta=.144$), 성별($\beta=-.141$)의 순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다. 다시 말해, 남성이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월 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노후생활에 대비하여 신체적인 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었다. 성격특성에서는 호감성을 제외한 나머지

표 4-5. 성격특성이 신체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1단계			2단계		
		B	β	t	B	β	t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¹⁾	-.244	-.120	-1.877	-.287	-.141	-2.311*
	연령	.068	.053	1.030	.077	.061	1.253
	학력	-.107	-.073	-1.387	-.111	-.076	-1.499
	배우자유무 ²⁾	.040	.012	0.220	.320	.093	1.778
	자녀 수	-.082	-.060	-1.079	-.063	-.046	-0.865
	주택소유유무 ³⁾	.758	.236	4.342***	.545	.170	3.298**
	부모부양여부 ⁴⁾	.015	.007	0.133	.017	.008	0.161
	월평균수입	.218	.205	3.788***	.155	.144	2.842**
성격 특성	외향성				.131	.131	2.770**
	정서적 불안정성				-.153	-.153	-3.140**
	호감성				.001	.001	0.024
	개방성				.263	.263	5.432***
	성실성				.146	.146	2.936**
F		9.504***			10.819***		
R ²		.191			.307		
ΔR^2					.116		

* $p < .05$, ** $p < .01$, *** $p < .001$

1)성별(남성=0, 여성=1), 2)배우자유무(없다=0, 있다=1), 3)주택 소유유무(없다=0, 있다=1), 4)부모부양여부(부양 안한다=0, 부양한다=1)

요인이 영향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신체적 노후준비에 대하여 외향성($t=2.770, p<.01$)과 개방성($t=5.432, p<.001$), 성실성($t=2.936, p<.01$)은 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고, 개방성($\beta=.263$), 성실성($\beta=.146$), 외향성($\beta=.131$)의 순으로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정서적 불안정성($t=-3.140, p<.01$)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30.7%로서 1 단계보다 11.6%($\Delta R^2=.116$) 증가하였다.

성실성이 신체적 노후준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Howard[56]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새로운 체험을 좋아하거나 문화 및 여가생활을 즐기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을수록 건강을 위해 운동이나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등 신체적으로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었다. 그러나 열등감과 강박감이 심하고 무기력하며 조그마한 일에도 민감한 성격일수록 신체적인 노후준비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성격은 건강한 노후생활을 준비하는데 있어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성격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실증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성격특성의 요인 중에서 호감성은 신체적 노후준비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이 영향요

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외향성과 개방성, 성실성은 신체적 노후준비에 정(+)적 영향을, 정서적 불안정성은 부(-)적 영향을 미쳤다.

3.2 성격특성이 사회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표 4-6]은 성격특성이 사회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성격특성의 5개요인(외향성, 정서적 불안정성, 호감성, 개방성, 성실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사회적 노후준비를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1단계에서 투입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포함한 회귀모형의 F통계값은 5.446으로서 $p<.001$ 에서 유의하였고, 변수들 간의 투입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VIF값이 1.065~1.659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성별($t=5.668, p<.001$)만이 사회적 노후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어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노후준비를 비교적 많이 하고 있었고,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11.9%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회적 노후준비에 적극적이었다는 황승일[11] 연구와 일치한다.

2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성격특성의 요인을 투입한 결과 회귀모형의 F통계값은 9.745로서

표 4-6. 성격특성이 사회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1단계			2단계		
		B	β	t	B	β	t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¹⁾	.768	.377	5.668***	.770	.378	6.110***
	연령	.014	.011	0.204	.004	.003	0.066
	학력	.147	.101	1.827	.084	.058	1.123
	배우자유무 ²⁾	-.110	-.032	-0.575	-.104	-.030	-0.572
	자녀 수	-.024	-.017	-0.299	-.030	-.022	-0.410
	주택소유무 ³⁾	-.037	-.012	-0.205	-.249	-.078	-1.480
	부모부양여부 ⁴⁾	-.076	-.035	-0.643	-.077	-.035	-0.707
	월평균수입	.067	.075	1.119	.006	.006	0.103
성격 특성	외향성				.214	.214	4.449***
	정서적 불안정성				-.058	-.058	-1.158
	호감성				.066	.066	1.343
	개방성				.237	.237	4.826***
	성실성				.276	.276	5.466***
F		5.446***			9.745***		
R ²		.119			.286		
ΔR^2					.167		

*** $p<.001$

소유 유무(없다=0, 있다=1), 4)부모부양여부(부양 안한다=0, 부양 한다=1)1)성별(남성=0, 여성=1), 2)배우자유무(없다=0, 있다=1), 3)주택

p<.001에서 유의하였고, VIF값은 1.027~1.722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는 성별(t=6.110, p<.001)이 사회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성격특성 중에서는 외향성(t=4.449, p<.001)과 개방성(t=4.826, p<.001), 성실성(t=5.466, p<.001)이 사회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이들 성격특성 요인 중에서 성실성(β =.276)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컸고, 그다음으로 개방성(β =.237), 외향성(β =.214)의 순으로 영향력을 보였으며,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28.6%로서 1단계보다 16.7% (ΔR^2 =.167)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자신을 유능하다고 생각하거나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며 새로운 체험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적극적인 성격을 지닐수록 봉사활동이나 종교 여가 활동 등 사회적으로 노후를 더 많이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성격특성의 요인 중에서 외향성과 개방성, 성실성이 사회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친데 반, 정서적 불안정성과 호감성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3.3 성격특성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성격특성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성격특성의 5개 요인(외향성, 정서적 불안정성, 호감성, 개방성, 성실

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경제적 노후준비를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7]과 같다.

1단계에서 투입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포함한 회귀 모형의 F통계값은 3.098로서 p<.01에서 유의하였고, 변수들 간의 투입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VIF값이 1.065~1.659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연령(t=2.235, p<.05)과 학력(t=2.856, p<.01)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연령(β =.124)에 비해 학력(β =.162)의 상대적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학력과 연령이 높을수록 노후를 대비하여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의 경제적인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더 한다는 강유진[12], 홍성희[13]의 연구와 일치하며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김남순[6], 지민선[16], 배계희[17]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요인의 전체 설명력이 7.1%로서 10% 미만을 보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확대 해석하는데 주의해야 한다.

2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성격특성의 요인을 투입한 결과 회귀모형의 F통계값은 4.684로서

표 4-7. 성격특성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단계	1단계			2단계		
		B	β	t	B	β	t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¹⁾	-.269	-.132	-1.930	-.236	-.116	-1.727
	연령	.157	.124	2.235*	.150	.118	2.202*
	학력	.235	.162	2.856**	.169	.116	2.087*
	배우자유무 ²⁾	.006	.002	0.032	.061	.018	0.307
	자녀 수	.060	.044	0.741	.044	.032	0.552
	주택소유유무 ³⁾	.070	.022	0.375	.114	.035	0.625
	부모부양여부 ⁴⁾	-.057	-.026	-0.465	-.078	-.036	-0.659
	월평균수입	.029	.032	0.465	.011	.012	0.178
성격 특성	외향성				.149	.149	2.866**
	정서적 불안정성				.200	.200	3.717***
	호감성				.025	.025	0.467
	개방성				.127	.127	2.380*
	성실성				.125	.125	2.280*
F			3.098**		4.684***		
R ²			.071		.161		
ΔR^2					.090		

*p<.05, **p<.01, ***p<.001

1)성별(남성=0, 여성=1), 2)배우자유무(없다=0, 있다=1), 3)주택 소유유무(없다=0, 있다=1), 4)부모부양여부(부양 안한다=0, 부양한다=1)

$p < .001$ 에서 유의하였고, VIF값이 1.027~1.722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는 연령($t=2.202, p < .05$)과 학력($t=2.087, p < .05$)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학력($\beta=.116$)에 비해 연령($\beta=.118$)의 상대적 영향력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났다. 성격특성 중에서는 호감성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이 영향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외향성($t=2.866, p < .01$)과 정서적 불안정성($t=3.717, p < .001$), 개방성($t=2.380, p < .05$), 성실성($t=2.280, p < .05$) 모두가 경제적 노후준비에 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중에서도 정서적 불안정성($\beta=.200$)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컸고, 그다음으로 외향성($\beta=.149$), 개방성($\beta=.127$), 성실성($\beta=.125$)의 순으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는 Julia[54]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즉, 외향성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치하나 개방성이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이는 연구대상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16.1%로서 1단계보다 9.0%($\Delta R^2=.090$)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강박감이 심하고 조그마한 일에도 민감할 뿐 아니라 적극적이고 외향적이며, 새로운 체험을 좋아하거나 성실한 성격을 지닐수록 노후에 대비하여 경제적인 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의 성격특성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부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격특성과 노후준비에서 부분적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베이비부머의 성격특성 중 외향성과 개방성, 그리고 성실성은 신체적 노후준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정서적 불안정성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호감성은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베이비부머의 성격특성이 사회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성실성과 개방성, 외향성이

정(+)의 영향을 미쳤고, 정서적 불안정성과 호감성은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베이비부머의 성격특성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서적불안정성,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이 영향을 미치고 호감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호감성과 정서적 불안정성을 제외한 성격요인들이 노후준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성격특성이 노후준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호감성이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와 정서적 불안정성이 신체적 노후준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호감성과 정서적 불안정성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노후준비에 대한 별도의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호감성이 모든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경제적 노후준비에서 개방성이 본 연구와 Julia의 연구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추후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노후에 대해 별다른 준비가 없이 은퇴를 시작하는 베이비부머들에 대한 정책이나 컨설팅 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노후준비에 대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 성격특성(Big 5)검사를 통해 조건에 맞는 노후준비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 이용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성격특성(Big 5)과 전반적인 노후준비 즉 신체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노후준비와의 관계를 처음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다만 본 연구의 대상이 천안공단지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전국규모의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 문헌

- [1] 방하남, “베이비부머 은퇴 대비 정책 개발 연구, 베이비부머의 특징 및 현황”, 경제 인문 사회연구회 휴먼뉴딜 종합연구 총서, 11-05-01, 2010.
- [2] www.census.go.kr
- [3] 나일주, 임찬영, 박소화, “한국베이비붐 세대 은퇴 대비를 위한 정책방향”, 노인복지연구, 제42권, pp.151-174, 2009.
- [4] 정경희, 이소정, 이윤경, 김수봉, 선우덕, 오영희, 김경래, 박보미, 유혜영, 이은진,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보건사회 연구원, 2010-30-18, 2010.
- [5] 한국투자보호재단, “펀드투자자 현황조사”, raw data분석(가구주가 베이비부머세대인 일반 가구 선택), 2011.
- [6] 김남순, *중년층 노동자의 노후설계 인식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7] 양해술, 홍식태, “한국 중고령자의 노인 교육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8권, 제5호, pp.287-299, 2008.
- [8] 임경자, *중년층의 노후준비가 중년기 위기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9] 최정숙, “내의 통제성이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경희행정논총, 제20권, pp.45-70, 2007.
- [10] 김지영, *중년층의 노후준비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11] 황승일, *초기 노인의 노후 관련 태도와 노후 준비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12] 강유진, “한국 성인 세대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30대,40대,50대 기혼남녀를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제16권, 제4호, pp.159-174, 2005.
- [13] 홍성희, 박인숙, “중년기 남녀 봉급생활자의 은퇴계획 비교분석”, 경제적준비와 건강준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4권, 제1호, pp.193-207, 2006.
- [14] 배문조, 전귀연,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은퇴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제42권, 제7호, pp.89-102, 2004.
- [15] 김주성, 최수일, “라이프스타일이 노후준비도 및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15권, 제3호, pp.97-119, 2010.
- [16] 지민선, *농촌 중년 여성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림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 [17] 배계희, *중년기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8] 김기태, *장년층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19] 손덕순, “용인 시민의 노후준비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용인학연구, 제2호, 제1호, pp.134-159, 2006.
- [20] 강영숙, *고령화 사회 중장년층 여성의 노후준비 의식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 [21] 성말순, *중년여성의 노후생활 준비와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22] 신승희,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23] 서진, 박혜인, “중년기 가족의 부양행동 및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과학논집, Vol.18 No.8, pp.143-166, 2004.
- [24] 김성희, *중년 여성의 노후생활 준비에 관한 조사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 [25] 이미선, *베이비붐 세대의 노부모 부양과 노후준비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26] 김양이, 이채우, “중년층의 노후준비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19, No.1, pp.52-82.
- [27] J. Korhonen, “Effect of business education and

- personality on retirement saving," Aalto University School of Economics, Master's Thesis, 2011.
- [27] 오선주, "본인과 배우자의 성격특성이 결혼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Vol.40, No.10, pp.210-215, 2002.
- [29] 정종현, 최수일, "노인의 성격 특성이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 가정학회지, Vol.49, No.8, pp.47-61, 2011.
- [30] 최영환, 정두선, 손수진, "부하직원이 인지한 호텔관리자의 성격5요인이 조직 몰입과 조직 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제22권, 제6호(통권 제 55호), pp.363-381, 2010.
- [31] 김인중, 인터넷 쇼핑몰의 서비스 품질과 고객 성격유형이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동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8.
- [32] 이채은, 이진영, "호텔직원의 Big 5 성격요인, 직무몰입 및 고객지향성간의 영향관계", 한국콘텐츠학회, 제10호,7호, pp387-395, 2010
- [33] 보건 복지부 노인복지 실태조사, 2010
- [34] 우재룡, 민주영, "오늘부터 준비하는 행복한 100년 플랜", 부쿠은, 2012,
- [35] 박상철, "노화란 무엇인가", 녹십자의보, 제32권, 제1호, 2004.
- [36] 김문을, 중년층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스트레스 연구,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37] 여운경, "한국 중산층 가계의 노후자금 적정성 연구", 한국 노년학, 제25권, 제1호, pp.21-36, 2005.
- [38] 박창제, "연령별 재무적 노후준비 유형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4권, 제4호, pp.139-166, 2008.
- [39] 백은영, "은퇴 후 소득 적정성 및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사회보장 연구, 제24권, pp.27-51, 2008.
- [40] 이정화, "광주·전남 중년층의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노후준비;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 생활과학학회지, 제20권, pp.275-289, 2000.
- [41] 여운경, "목표소득 대체율을 통한 은퇴 소비의 추정" 대한 가정학회지, 제40권, 제3호, pp.83-97, 2002.
- [42] kb금융지주연구소,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후 자산여력진단", 2011.
- [43] 박은주,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여성 노인의 건강과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미치는 효과, 백석대학교 기독교 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8.
- [44] 차승은, 한경혜, "직업, 가족, 그리고 중년기 신체적 건강", 가족과문화, 제15권, 제2호, pp.33-60, 2003.
- [45] J. W. Rowe and R. L. Kahn,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Vol.37, pp.443-440, 1997.
- [46] S. B. Laditka, "Attitudes about aging well among a diverse group of older americans: Implications for promoting cognitive health," The Gerontologist, Vol.49, pp.S1-S39, 2009.
- [47] 하워드. S프리트먼, 레슬리 R.마틴, 나는 몇 살까지 살까, 쌤앤 파커스, 2012.
- [48] T. C. Antonuchi, H. Akiyama, and K. Takahashi, "Attachment and close relationships across the life span,"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Vol.6, pp353-370, 2004.
- [49] 김재경, 조직구성원의 성격유형과 조직 효과성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 논문, 2006.
- [50] R. B. Cattell, The description of personality: Basic trits resolved into cluste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Vol.38, pp.476-506, 1943.
- [51] P. T. jr Costa and R. R. MacCare,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and NEO Five-Factor Inventory Professional Manud. Florida: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1992a.
- [52] <http://www.work.go.kr> 워크넷 직업선호도검사

- [53] 백경숙, *개인적인 성향에 따른 노후생활 대책*, 고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54] J. Korhonen, "Effect of business education and personality on retirement saving," Aalto University School of Economics, Master's Thesis, 2011,
- [55] C. Mayfield, G. Perdue, and K. Wooten, "Investment management and personality type," *Financial Services Review*, Vol.17, pp.219-236, 2008.
- [56] H. Friedman and R. M. Leslie, *The Longevity Project*, Penguin Group Inc, 2011.

저 자 소 개

유 인 순(In-Soon You)

정회원



- 2005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국어국문학사)
- 2008년 2월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진로 및 직업상담 석사)
- 2012년 2월 : 호서대학교 박사수료(노인복지학과)

<관심분야> : 직업상담, 노인복지

최 수 일(Soo-Il Choi)

정회원



- 1974년 2월 : 연세대학교(공학사)
- 1997년2월 : 연세대학교(공학석사)
- 2007년 2월 : 호서대학교(경영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교수
 - 2005년 5월 ~ 현재 : 한국 종합 경제 연구소 연구위원
- <관심분야> : 경영전략, 조직론, 리더십, 노인복지